

	보도자료	2026. 4. 15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	김수미	☎ 760-7601
		특화작목육성팀장	박남수	☎ 760-762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참깨 수확 기계화 확대·동부지역 소득작목 육성 박차

- 동부농업기술센터, 기계수확용 참깨 실증사업 40ha로 확대 추진 -
- 노동력 98% 절감 효과 확인...월동채소 휴경기 새로운 소득 모델 제시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(소장 김수미)는 인력난으로 위축된 참깨 재배의 경쟁력을 높이고, 월동채소 작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‘기계수확용 참깨 신품종 보급 실증사업’을 확대 추진한다.
- 기존의 참깨는 수확 과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높은 작목으로, 농촌 인력부족 등의 영향으로 도내 재배면적이 2019년 629ha에서 2024년 231ha로 63.3% 감소했다. 기존 재배는 예취, 결속, 운반, 건조, 탈곡 등 전 과정이 수작업에 의존하며, 10a 기준 약 32.6시간의 노동이 소요된다.
-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기계수확이 가능한 신품종 ‘하니올’을 도입해 19ha 규모의 실증사업을 추진했다.
 - * 하니올: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기계수확용 품종으로 내탈립성(종자 불임성)이 우수해 낱알 손실이 적음
- 실증 결과 수확 작업 시간 단축 등 노동력 절감 효과와 재배 가능성을 확인했다. 콤바인을 활용할 경우 수확 시간이 약 30분으로 줄어 기존 대비 약 98%의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이에 따라 올해는 사업 규모를 확대해 56농가, 40ha에서 실증 재배를 추진하고, 기계수확 기술의 현장 적용성과 월동채소

휴한기를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.

* 이모작 작부체계: 월동채소 휴한기(5~8월) 참깨 재배 → 9월~이듬해 4월 월동채소 재배

- 이번 실증은 5월 상순 파종 후 꼬투리의 약 40~60%가 벌어질 때 건조제를 살포하고, 약 7일 후 수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, 8월에 현장평가를 통해 △노동력 절감 효과 △수확량 △농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- ‘하니올’ 품종은 내탈립성이 우수해 수확량이 기존 품종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 이를 통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참깨 재배면적 확대와 작부체계 개선이 가능해져 농촌 인력 부족 완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박남수 특화작목육성팀장은 “참깨는 노동집약적 작목이지만 ‘하니올’ 품종 도입으로 기계수확이 가능해졌다” 며 “앞으로도 실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과 작부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